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21, No. 8 pp. 485-494, 2020

https://doi.org/10.5762/KAIS.2020.21.8.485
ISSN 1975-4701 / eISSN 2288-4688

간호대학생의 동아리 활동이 의사소통 능력과 셀프리더십에 미치는 영향

송민선[1], 이인숙[2*]
[1]건양대학교 간호대학, [2]한남대학교 간호학과

The Effects of Club Activities on Communication Skills and Self-leadership of Nursing Students

Min Sun Song[1], In Sook Lee[2*]
[1]College of Nursing, Konyang University
[2]Department of Nursing, Hannam University

요 약 동아리 활동은 대학생들의 인간관계와 대학생활 적응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에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동아리 활동이 의사소통능력과 셀프리더십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시행하였다. 본 연구는 2019년 10월 15일부터 11월 30일까지 편의 표집한 일부 도시 간호학과 재학생 147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그 중 동아리 활동 참여자는 119명이었다. 자료 분석은 IBM SPSS/WIN 21.0을 이용하여 기술통계, χ^2검정, t-test,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analysis를 시행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연구대상자의 의사소통능력과 셀프리더십은 중간 이상이었으며, 동아리 활동 여부에 따라서는 학년(χ^2=8.07, p=.045), 전공만족도(χ^2=8.26, p=.010), 의사소통능력(t=8.19, p=.005), 셀프리더십 중 행동중심적 전략(t=4.48, p=.036)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대상자의 의사소통능력은 행동중심적 전략, 건설적 사고전략 및 동아리 활동수준 중 적극성이 유의한 영향요인이었다. 셀프리더십은 의사소통능력이 유의한 영향요인이었다. 따라서 대상자들의 다양한 동아리 경험은 의사소통능력을 향상시키고 그것은 셀프리더십 함양에 도움을 줄 것이다. 향후 간호대학생의 적극적인 동아리 활동을 장려하고 전문간호사의 핵심역량인 의사소통능력과 셀프리더십이 향상되는 교육적 전략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Abstract Club activities play an important role for college students in adapting to their college life. This study was therefore undertaken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club activities on the communication skills and self-leadership of nursing students. Convenience sampling method was applied for 147 students enrolled in the nursing department of university in D city, of which 119 subjects participated in club activities. Data was collected from October 15 to November 30, 2019, and analyzed by applying χ^2 test, t-test, and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using the IBM SPSS/WIN 22.0 program. Results: Communication skill and self-leadership were above the middle level. Depending on the club activities,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obtained for grade (χ^2=8.07, p=0.045), major satisfaction (χ^2=8.26, p=0.010), and communication skill and behavior-focused strategies (t=4.48, p=0.036). Factors affecting communication skill were behavior-focused strategies, constructive thought pattern strategies, and activeness amongst club activities. Therefore, the numerous club activity experiences of subjects helped improve the communication skill which, in turn, helps improve self-leadership. Our study indicates the necessity to seek an educational strategy that encourages active club activities of nursing students, for improving the core competencies of professional nurses, encompassing communication skills and self-leadership.

Keywords : Club Activities, Communication, Self-leadership, Students, Nursing

이 논문은 2019년도 한남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Corresponding Author ; In Sook Lee(Hannam Univ.)
email: is2009@hnu..kr
Received July 7, 2020 Revised August 6, 2020
Accepted August 7, 2020 Published August 31, 2020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대학은 지적 기능 발달이나 기술 습득뿐 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동화되고 적응에 필요한 인격을 형성하는 곳이다. 대학생들은 사회로 진출하기 전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사회에 잘 적응하기 위한 준비 작업을 한다. 대학에서는 교육과정 이외의 비교과 활동모임인 동아리 활동을 통해 다양한 경험을 하게하며, 성인으로 들어가는 대학생들에게 정서적 발달을 돕고, 원만한 대인관계를 형성하게 한다[1]. 특히 동아리 활동은 대학생활 적응을 촉진하는 매개체로도 지지받고 있다[2]. 동아리 활동은 성별, 학년의 제약성에서 벗어나 공통의 관심분야에 따라 모임을 형성하므로, 이를 통해 대인관계 능력을 향상시키고, 자기표현의 기회를 가지며, 민주적인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 한다[3,4].

의사소통이란 타인과의 관계에서 의사소통 수단을 활용하여 얼마나 상호작용을 잘하는가를 의미하며, 의사소통이 갖는 사회적 속성에 대해 사람들이 가지는 지식이자 적절성과 효과성을 수반하는 지식, 기술, 그리고 동기가 의사소통능력이라 할 수 있다[5]. 간호 교육에서도 의사소통능력은 의료인이 갖추어야 할 필수 요소로서 대상자와 상호관계를 효과적으로 연결해 주는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다[6]. 간호 대학생들은 임상실습 뿐 아니라 졸업 후 다양한 간호 상황에서 대상자와의 관계, 동료학생과의 관계, 문제 해결능력, 실습 목표 달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7] 이러한 의미에서 타인을 이해하고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효과적인 의사소통능력 함양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8].

최근 복잡하고 수준 높은 간호서비스에 대한 요구로 간호 현장에서도 법적, 전문적, 교육적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갖춘 간호사의 능력인 셀프리더십이 강조되고 있다. 셀프리더십은 타고난 재능이 있거나 유능한 사람만 발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발휘할 수 있고 학습과 훈련을 통해 얻어질 수 있다[9]. 이에 따라 간호 대학생 및 간호사의 셀프리더십 연구 및 교육과정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10,11].

대학생들의 동아리 활동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보면, 주로 대학생활 적응에 도움을 주고[2,4],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높아진다는 연구[12]가 대부분이었다. 대학생들은 대학 생활 동안 여러 전공교과목 이수와 동아리 활동과 같은 비교과 활동 등을 통해 성장을 계속하지만 학생들의 동아리 활동수준, 의사소통능력 및 셀프리더십과의 관계를 보고한 연구로서는 학습동아리 프로그램 참여로 의사소통능력 중 정보수집과 타인의 관점 이해가 높아졌고, 문제해결능력 중 확산적 사고가 증가하였다는 연구[13] 외에 동아리활동과 의사소통 및 셀프리더십과 관련한 연구는 미흡하였다. 이에 본 연구자들은 대상자와의 전문적인 상호작용을 통하여 간호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의사소통능력과 셀프리더십을 조사하고, 간호대학생의 동아리 활동이 의사소통능력과 셀프리더십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한다. 동아리 활동이 대학교육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보다 체계를 갖추어 운영된다면 대학생활에 긍정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4]. 따라서 이러한 연구를 토대로 간호 대학생들의 전공교과목 외에 비교과 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확대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동아리 활동수준, 의사소통능력 및 셀프리더십을 알아보고, 동아리 활동 여부가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능력과 셀프리더십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의사소통능력 및 셀프리더십을 확인한다.

둘째, 대상자의 동아리 활동 및 동아리 활동수준을 확인한다.

셋째, 동아리 활동 여부에 따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의사소통능력 및 셀프리더십의 차이를 확인한다.

넷째, 동아리 활동이 대상자의 의사소통능력과 셀프리더십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 대학생의 동아리활동, 의사소통능력 및 셀프리더십을 조사하고, 동아리 활동이 의사소통능력과 셀프리더십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2 연구대상

연구대상자는 D광역시 일개대학 간호학과 재학생으로 연구목적을 이해하고 연구 참여에 동의한 대상자를

선정기준으로 하여 모집하였다. 본 연구의 필요 연구 대상자 수를 위한 표본수 산정은 G * Power 3 program을 이용하였으며[14], 유의수준 0.05, 효과크기 0.30, 검정력 0.95 조건에서 산출된 134명에 탈락율 10%를 고려하여 150명으로 산출하였고, 불성실한 응답을 제외한 147부를 분석하였다. 이 중 동아리 참여 대상자는 119명이었다.

2.3 연구도구

2.3.1 동아리 활동 특성

동아리 유형, 동아리 모임횟수, 동아리 참여 동기, 동아리 내 본인역할로 구성하였다.

2.3.2 동아리 활동 수준

동아리 활동수준을 평가하는 척도는 Kim [15]이 연구한 동아리 활동수준에 사용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동아리 활동수준을 평가하는 5가지 하위 요인은 동아리의 가입과 활동 참여에 있어 자신의 자발적 성향과 동아리의 활동 내용에 대한 이해도를 알아보는 자발성 3문항, 동아리 연간 활동계획, 결정된 동아리 활동 등의 적극적인 참여를 알아보는 적극성 3문항, 동아리 내 의사결정 과정 및 문제점 개선 노력 등을 알아보는 문제해결력 3문항, 동아리 활동이 차지하는 비중, 활동의 적응과 보람 정도, 동아리 활동 자체에 대한 만족을 평가하는 만족도 7문항, 활동하는 동아리의 회칙, 연간 계획에 의한 운영, 전체 회의를 통한 의사 결정 구조를 알아보는 조직력 4문항,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매우 그렇다' 5점의 Likert 5점 척도로 구성되었다. 선행연구[15]에서 신뢰도 Cronbach's α는 전체 .99였으며, 본 연구에서 동아리 활동수준의 신뢰도 Cronbach's α는 전체 .93, 하위영역별로는 자발성 .62, 적극성 .82, 문제해결력 .80, 만족도 .84, 조직력 .69였다.

2.3.3 의사소통 능력

의사소통 능력은 Hur [5]가 개발한 포괄적인 대인 의사소통능력 척도(Global interpersonal Communication Competence, GICC, 2003)로 자기노출, 역지사지, 사회적 긴장완화, 주장력, 집중력, 상호작용관리, 표현력, 지지력, 즉시성, 효율성, 사회적 적절성, 조리성, 목표간파, 반응력, 잡음 통제력에 대한 역채점 2문항은(10, 11번 문항)을 포함하여 총 15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전혀 아니다' 1점에서 '항상 그렇다' 5점까지 Likert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의사소통 능력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신뢰도 Cronbach's α는 .72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Cronbach's α는 .87이었다.

2.3.4 셀프리더십

Houghton과 Neck [16]이 개발하고 Shin, Kim과 Han [17]이 번안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3가지 전략의 총 35문항으로, 행동 중심적 전략은 자기목표설정, 자기보상, 자기처벌, 자기관찰, 자기단서의 18문항, 자연적 보상전략은 자연적 보상의 5문항, 건설적 사고전략은 성공적인 수행 상상, 자기대화, 신념과 가정분석 12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 5점까지 Likert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셀프리더십이 높음을 의미한다.

개발당시 Houghton과 Neck [16]의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α는 .74 ~ .93 이었고, Shin등[17]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α는 .70 ~ .87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신뢰도 Cronbach's α는 .94였으며, 하위영역별로는 행동 중심적 전략 .89 , 자연적 보상전략 .78, 사고전략 .91이었다.

2.4 자료 수집 절차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은 2019년 10월 15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시행하였다. 연구 참여에 동의한 대상자에게서면 동의서를 받은 후 연구보조원이 설문지를 나누어주고 직접 그 자리에서 수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설문지는 학생회 회의실에서 시행하였으며, 설문 소요시간은 20분이었으며, 설문이 끝난 후 소정의 상품을 제공하였다.

2.5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H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심의(IRB No: 2019-02-12-0814)를 받은 후 시행하였다. 연구자가 연구목적을 설명하고, 연구 참여 중 자발적으로 참여를 중단할 수 있고, 참여중단이나 철회로 인한 어떤 불이익도 받지 않음을 설명하였다. 수집된 자료들은 잠금장치가 있는 보관함에 3년간 보관 예정이며, 보관기간이 끝난 후에는 파일을 삭제하고 관련서류는 복귀할 수 없는 방법으로 폐기할 예정임을 설명하였다.

2.6 자료 분석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은 SPSS WIN 21.0 통계 프로그

램을 이용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봉사활동 특성 및 주요변수들은 빈도와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동아리 활동여부에 따른 일반적 특성 및 의사소통과 셀프리더십의 점수는 χ^2검정, t-test를 이용하여 두 집단의 차이를 분석하였으며, 동아리 활동이 의사소통능력과 셀프리더십에 미치는 영향은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analysis를 시행하였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의사소통능력 및 셀프리더십

본 연구 대상자는 총 147명으로 Table 1과 같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여성이 124명(84.4%)으로 많았으며, 학년은 1학년이 62명(42.2%), 2학년이 46명(31.3%), 3학년이 13명(8.8%), 4학년이 26명(17.7%) 이었다. 형제 자매수는 2명이 98명(66.7%)으로 가장 많았고, 3명이상이 38명(25.9%)이었다. 전공만족도는 '만족한다' 이상이 132명(89.8%)였다. 동아리 활동을 참여하는 대상자는 119명(81.0%), 참여하지 않는 대상자는 28명(19.0%)이었다. 의사소통 능력은 3.99±0.45점이었다. 또한, 셀프리더십은 전체 3.81±0.44점이었으며, 하위영역은 행동중심적 전략은3.84±0.46점, 자연적 보상전략 3.77±0.59점, 건설적 사고전략 3.77±0.56점 순이었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degree of communication skills and self-leadership of subjects (N=147)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Mean±SD
Gender	Male	23(15.6)
	Female	124(84.4)
Grade	Freshman	62(42.2)
	Sophomore	46(31.3)
	Junior	13(8.8)
	Senior	26(17.7)
Sibling	1	11(7.5)
	2	98(66.7)
	more than 3	38(25.9)
Major satisfaction	Not satisfied	15(10.2)
	Satisfied	132(89.8)
Club activities	Have	119(81.0)
	None	28(19.0)
Communication skill	Total	3.99±0.45
Self-leadership	Behavior-focused strategies	3.84±0.46
	Natural reward strategies	3.77±0.59
	Constructive thought pattern strategies	3.77±0.56
	Total	3.81±0.44

3.2 대상자의 동아리 특성 및 동아리 활동수준

동아리 참여 대상자 119명의 동아리 특성 및 동아리 활동수준은 Table 2와 같다. 이들의 동아리 참여 시간은 1개월에 2회 이상 참여가 46명(38.7%), 1개월에 1회 참여가 28명(23.5%)이었고, 동아리 가입은 하였으나 참여하지 않은 대상자도 15명(12.6%)로 나타났다. 동아리 유형은 음악미술체육이나 레저 활동과 같은 문화예술 동아리 참여가 50명(42.0%), 학생회나 봉사활동참여와 같은 사회 참여형 동아리 참여가 47명(39.5%) 순으로 많았다. 참여 동기는 여가활동 38명(31.9%)으로 많았고, 능력개발 29명(24.4%), 학교당국이나 친구권유 24명(20.2%)순이었다. 동아리 내 본인의 역할로는 일반회원이 101명(84.8%), 임원이 18명(15.1%)이었다.

동아리 활동수준은 5점 척도 3.73±0.61점이며, 하위영역에서 자발성은 3.99±0.62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적극성은 3.38±0.95점으로 가장 낮았다.

Table 2. Club characteristics and club activity's average of subjects (N=119)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Mean±SD
Participating time	0	15(12.6)
	1/month	28(23.5)
	More than 2/month	46(38.7)
	1/2months	6(5.0)
	1/3months	11(9.2)
	1/1semester	13(10.9)
Activity type (multiple response)	Major related	38(31.9)
	Study	3(2.5)
	Social participation	47(39.5)
	Culture and art leisure	50(42.0)
	Religion	20(16.8)
Motivation to participate (multiple response)	Leisure	38(31.9)
	Friendship	13(10.9)
	School and friend recommendation	24(20.2)
	Ability development	29(24.4)
	Acquire knowledge in related fields	13(10.9)
	Etc.	15(12.6)
Role	Leader	18(15.1)
	General member	101(84.8)
Club activity's average	Voluntary	3.99±0.62
	Activeness	3.38±0.95
	Solving problem	3.74±0.78
	Satisfaction	3.75±0.64
	Unity	3.74±0.67
	Total	3.73±0.61

3.3 동아리 활동 여부에 따른 일반적 특성, 의사소통 능력 및 셀프리더십

대상자의 동아리 활동여부에 따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의사소통능력 및 셀프리더십의 차이는 Table 3과 같다.

동아리 활동 여부에 따른 일반적 특성은 학년별 차이가 있었다(χ^2=8.07, p=.045). 동아리 참여집단이나 비참여집단은 1,2학년에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만족도 역시 차이를 보였으며(χ^2=8.26, p=.010), 동아리 활동을 하는 대상자의 전공만족도 비율이 높았다. 반면, 성별, 형제자매수는 차이가 없었다.

동아리 활동 여부에 따른 의사소통능력 및 셀프리더십의 차이를 보면, 의사소통능력은 동아리가 없는 대상자는 3.71±0.54점, 동아리가 있는 대상자는 3.99±0.45점으로 동아리가 있는 대상자의 의사소통능력이 높았다(t=8.19, p=.005). 셀프리더십은 전체는 동아리 활동 여부에 따라 차이가 없었으나, 하위항목별로는 행동중심적 전략은 동아리가 없는 대상자는 3.63±0.55점, 동아리가 있는 대상자는 3.84±0.46점으로 동아리가 있는 대상자의 행동중심적 전략 점수가 높았다(t=4.48, p=.036). 반면, 자연적 보상전략과 건설적 사고전략은 차이가 없었다.

Table 3. Comparison of General characteristics, degree of communication skills and self-leadership by club activity (N=147)

Characteristics	Categories	Club activity: None (n=28)	Club activity: Have (n=119)	χ^2 or t (p)
		n(%) / Mean±SD		
Gender	Male	3(10.7)	20(16.8)	0.64 (.569)
	Female	25(89.3)	99(83.2)	
Grade	Freshman	8(28.6)	54(45.4)	8.07 (.045)
	Sophomore	8(28.6)	38(31.9)	
	Junior	6(21.4)	7(5.9)	
	Senior	6(21.4)	20(16.8)	
Sibling	1	2(7.2)	9(7.6)	0.39 (.825)
	2	20(71.4)	78(65.5)	
	More than 3	6(21.4)	32(26.9)	
Major satisfaction	Not satisfied	7(25.0)	8(6.7)	8.26 (.010)
	Satisfied	21(75.0)	111(93.3)	
Communication skill	Total	3.71±0.54	3.99±0.45	8.19 (.005)
Self-leadership	Behavior-focused strategies	3.63±0.55	3.84±0.46	4.48 (.036)
	Natural reward strategies	3.61±0.61	3.77±0.59	1.68 (.198)
	Constructive thought pattern strategies	3.64±0.65	3.77±0.56	1.21 (.273)
	Total	3.63±0.52	3.81±0.44	3.44 (.066)

3.4 동아리 활동이 대상자의 의사소통능력과 셀프리더십에 미치는 영향

동아리 활동이 대상자의 의사소통능력과 셀프리더십에 미치는 영향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Table 4와 같다.

본 회귀모형의 기본 가정을 검토하기 위하여, 잔차의 자기상관(Durbin-Watson의 통계량=2.109, 1.906, 각각), 잔차의 정규성과 선형성(잔차의 정규 P-P 도표와 히스토그램), 잔차의 등분산성(산점도)을 확인하였다. 또한 본 모형의 오차의 다중공선성 문제를 확인하기 위한 공차한계가 의사소통능력 모형은 .28~.62 , 셀프리더십모형에서는 .28~.77로 1.0이하였으며, 분산팽창인자(Variance Inflation Factor, VIF)는 각각 1.63~3.62 , 1.29 ~3.59로 기준값인 10을 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회귀분석의 기본가정이 모두 충족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대상자의 의사소통능력을 예측하는데 있어서 2개의 회귀 모형이 설정되었다. 모형 1은 셀프리더십을 예측변수로, 모형 2는 셀프리더십을 통제한 후 동아리 활동수준을 추가로 투입하였다.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모형 1에서 셀프리더십 하위영역 중 행동중심적 전략(β=.27, p=.003), 건설적 사고전략(β=.32, p=.002)이 유의한 예측변인이었으며, 동아리 활동수준이 추가 투입된 모형 2에서 설명력은 증가하였으며(R^2 변화량= .067, F=13.80, p<.001), 동아리 활동수준 중 적극성(β=-.31, p=.004)이 대상자의 의사소통능력에 유의한 예측변인이었고 본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46.5%였다.

대상자의 셀프리더십의 영향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모형 1은 의사소통능력을 예측변수로, 모형 2는 동아리 활동수준을 추가로 투입하였다.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모형 1에서 의사소통능력은 유의한 예측변인이었다(β=.66, p<.001). 동아리 활동수준이 추가 투입된 모형 2에서는 설명력은 증가하였으며(R^2 변화량=.035, F=16.18, p<.001). 대상자의 셀프리더십에 대한 설명력은 43.6%였다.

Table 4. The influence of club activities on communication skill and self-leadership (N=119)

Variables		Model I				Model II			
		B	β	t	p	B	β	t	p
Communication skill									
Self-leadership	Behavior focused strategies	3.99	.27	3.09	.003	3.42	.23	2.72	.008
	Natural reward strategies	2.03	.18	1.75	.083	1.58	.14	1.37	.174
	Constructive thought pattern strategies	3.84	.32	3.23	.002	3.69	.41	3.18	.002
Club activity's average	Voluntary					2.142	.20	1.98	.050
	Activeness					-.2.21	-.31	-2.92	.004
	Solving problem					1.45	.17	1.30	.195
	Satisfaction					0.05	.01	0.05	.964
	Unity					1.04	.10	1.07	.280
		F=29.42(<.001) R^2=.434 Adj. R^2 =.419				F=13.80(<.001) ΔR^2=.067 R^2=.501 Adj. R^2=.465			
Self-leadership									
Communication skill		1.50	.66	9.38	<.001	1.40	.61	7.76	<.001
Club activity's average	Voluntary					0.35	.04	0.41	.682
	Activeness					0.98	.17	1.53	.130
	Solving problem					-0.74	-.11	-0.85	.396
	Satisfaction					0.28	.08	0.73	.466
	Unity					0.12	.02	-0.20	.840
		F=88.01(<.001) R^2 =.429 Adj. R^2 =.424				F=16.18(<.001) ΔR^2 =.035 R^2 =.464 Adj. R^2 =.436			

4. 논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동아리 활동이 의사소통능력과 셀프리더십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자 시행되었다. 연구 결과를 토대로 간호 대학생의 의사소통능력과 셀프리더십 향상을 위한 동아리 활동의 참여를 확대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의사소통 능력은 5점 만점에 3.99점이었다. 이는 Hur [5]의 연구에서 3.55점, Lee와 Chung [18]의 연구에서 3.73점보다 높은 수준이었다. 이는 다양한 임상상황에서 역할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서 최근 전문직 간호사가 갖추어야 하는 핵심역량으로 대학교육에서 의사소통 능력 교육을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전보다 더 높았을 것으로 생각한다. 미래의 간호사로서 대상자의 요구를 올바르게 해석하고 문제를 해결하며 치료적 의사소통을 하고, 여러 보건의료인들과의 협력에 필요한 것이 의사소통 능력임을 감안할 때, 학부과정에서 의사소통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은 지속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동아리 활동 여부에 따라 동아리가 있는 대상자의 의사소통능력이 높았다. 동아리 활동을 통해 타인과의 관계에서 다양한 상호작용의 결과로서 일반 대학 교과활동으로 충족되지 못한 의사소통능력이 향상될 수 있음은 선행연구[19,20]에서 나타난 바 간호대학생의 적극적인 동아리 활동 참여를 격려하고 학과 자체적으로 전공동아리 등을 확대 운영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셀프리더십은 3.81점이었으며, 하위 영역의 행동중심적 전략 3.84점, 자연적 보상전략 3.77점, 건설적 사고전략 3.77점이었다. 셀프리더십은 동아리 활동 여부에 따라 차이가 없어 동아리 활동을 하는 학생이 셀프리더십이 높았다는 선행연구[19,21]와는 상반된 결과였다. 그러나 셀프리더십의 하위항목 중 행동중심적 전략에서 동아리활동이 있는 대상자의 셀프리더십 점수가 높았다. 행동중심적 전략은 자기목표설정, 자기보상, 자기처벌, 자기관찰, 자기단서로 구성된 전략으로 간호업무 수행에 있어서도 이러한 리더십은 중요한 역량으로 자발적인 동아리 참여와 적극적 활동 안에서 목표를 수립하고 달성하는 동아리 활동의 노력이 셀프리더십을 향상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다양한 임상현장에서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고 의사결정을 하며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리더십 역량과 자질을 키우기 위해 동아리 활동 참여를 격려해야 한다. 또한 친구, 교사의 지지가 동아리 활동참여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나[22,23], 동료와 학교 측의 지지를 긍정적으로 강화시킬 수 있는 방안과, 학생들의 유대감 증진과 동아리 활동의 참여를 촉진시킬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동아리 활동이 있는 대상자들의 동아리 세부 활동수준은 전체 3.73점이며, 하위 영역에서 자발성은 3.99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적극성은 3.38점으로 가장 낮았다. 이는 연구대상자는 다르지만 Kim [15]의 연구에서 전체 평균 3.07점, 문제해결이 3.35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자발성 3.28점, 적극성 2.96점으로 가장 낮아 본 연구와 점수분포는 유사한 결과였다. 선행 연구에서 낮은 점수는 대상자가 청소년이었기에 우리나라 교육환경과 입시스트레스로 인해 동아리 활동을 위한 현실적 어려움에서 기

인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선행연구와 본 연구에서도 가장 낮은 활동수준 영역인 적극성은 본 연구의 의사소통능력에 있어서는 유의한 영향요인으로 동아리 활동의 긍정적 의의를 최대한 나타낼 수 있도록 대학교육이 지지해야 한다. 자발적 참여를 강조하며 다양하고 능동적인 행동을 요구하는 동아리 활동을 학점 이수나 졸업인증을 위한 형식적 활동에서 그치기보다 적극성을 가지고 다양한 활동을 통해 사회성을 함양한다면 의사소통능력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동아리 활동 여부에 따른 일반적 특성은 학년별에서도 차이가 있었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동아리 활동비율이 낮아지는 것은 취업준비와 국가고시 준비로 인한 시간적 여유에서 비롯된 결과일 것으로 생각한다. 따라서 이러한 제한점을 극복하고 동아리 활동이 단순한 비교과 활동의 대학교육이 아닌 타인과의 상호교류와 다양한 인간관계 형성으로 의사소통능력과 리더십이 함양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겠다. 동아리 활동이 있는 대상자들에서 동아리의 유형은 음악미술체육이나 레저 활동 42.0%, 학생회나 봉사활동참여와 같은 사회 참여형 활동이 39.5%, 전공관련 31.9% 이었다. 전공 관련 실무경험을 제공하거나 교과목과 연계되어 봉사활동 동아리 혹은 학점이수과정으로 대학 내에서도 사회봉사 프로그램이 장려되고 있으므로 학생들의 흥미와 관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설이 필요하다. 또한, 진로 및 취업 역량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학년별로 차별화된 동아리 프로그램이 개설되면 동아리 활동의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의사소통 영향요인은 셀프리더십의 하위영역 중 행동중심적 전략, 성공적 수행 상상, 자기대화, 신념과 가정 분석의 내용을 포함하는 건설적 사고전략이 유의한 영향요인이었으며, 동아리 활동수준이 추가되어 설명력은 증가하였다. 동아리 활동수준 중 적극성이 대상자의 의사소통능력에 유의한 영향요인이었고, 이들은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능력을 46.5%로 설명하였다. 동아리 활동 등은 정규 교과과정이 지닌 한계를 벗어나 학생들의 자발적 참여 동기를 확보할 수 있게 하는데[24], 이에 동아리 활동 참여를 적절히 활용하면 능동적인 경험과 적극성 함양이 대상자의 리더십 활동에도 도움을 줄 것이다. 특히 의사소통능력은 목표를 형성하고 달성할 수 있는 능력, 다른 사람과 효과적으로 협동할 수 있는 능력, 상황과 환경적 변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능력[25]으로 볼 수 있는데, 이는 복잡한 임상현장에서 간호사가 반드시 갖추어야 할 핵심역량과도 일치한다. 자기목표설정, 자기보상, 자기처벌, 자기관찰, 자기단서로 구성된 행동중심전략과 성공적 수행 상상, 자기대화, 신념과 가정 분석과 같은 건설적 사고전략으로 표현되는 셀프리더십은 의사소통에 매우 중요한 영향요인이며, 다양한 경험 속에서 폭넓은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하며 능동적으로 조직하고 운영할 수 있는 동아리 활동을 통해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동아리 참여 태도가 적극적인 경우에 의사소통능력이 더 높게 나타났다는 Ha 등[19]의 연구를 지지하며, 특히 동아리 활동과 같은 비교과 활동이 타인에 대한 관심, 대인관계 향상 및 의사소통능력 등과 같은 실질적 능력 향상에 도움을 준다는 연구를[26] 뒷받침한다. 공통의 관심과 취미를 공유하며 다양한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동아리 활동 속에서 이들의 의사소통능력이 긍정적으로 향상되었을 것으로 유추되며, 대학에서는 이를 지원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과 평가 및 그 효과를 검증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대상자의 셀프리더십은 의사소통능력이 유의한 영향요인이었으며 동아리 활동수준을 더하여 셀프리더십을 43.6%로 설명하였고 이는 선행연구결과[17]를 지지한다. 개인이 스스로 목표한 바를 이루기 위하여 행동과 생각을 통제하고[17], 자신이 설정한 목표달성에 대한 보상을 스스로 정하거나 목표를 이루지 못했을 때 자아반성을 하는 등의 자율성을 제공하는 것이 셀프리더십이다[27]. 셀프리더십은 학업 ,취업전략의 긍정적 영향 뿐 아니라, 개인적 성장에도 긍정적 영향을 주며[28], 교육과 경험을 통해 개발될 수 있다[21,29]. Choi와 Im [21]은 창의성과 사회적 지지가 셀프리더십에 유의한 영향요인임을 제시했고, 창의성 함양을 위해 동료들과 함께 하는 활동을 활용하여 일상적 창의성을 함양하고 능동적이며 협동적으로 변하는 팀기반학습과 같은 동료가 함께 하는 학습법 개발 필요성과 사회적 지지 인식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따라서 교과과정에서는 과업수행을 성공적으로 이끌고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자율적으로 조절하고 통제할 수 있는 교육과 동아리 활동과 같은 비교과 활동에서 리더십을 함양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Kim [30]은 한국적 리더십 기술의 구성요인 중 하나가 동아리 활동이라고 하였다. 간호 대학생이 효과적인 의사소통 기술을 이용하여 긍정적 상호작용을 하고 타인을 배려하며 책임감과 도전의식 등을 중요하게 여기는 리더십이 대학교육에서 이루어진다면 간호현장에서 보건의료전문인으로서 자신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를 위해 비교과 활동을 장려하고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는 정책도 다각적인 방향으로 고려해야 한다. 대학 차원에서는 동아리 활동의 다양성을 보장하고 학생

들이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 동기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학과 차원에서는 동아리를 적극 장려하며, 교수 역시 수업이나 수업 외의 교류를 지속하여 학생들의 동아리 활동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러한 비교과 활동이 단순한 참여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충분한 기회 제공 및 궁극적으로는 교과와 비교과 연계 체계를 통해 학생들의 의사소통능력, 셀프리더십을 함양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동아리 활동이 의사소통능력과 셀프리더십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자 시행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대상자의 의사소통능력은 행동중심적 전략, 건설적 사고전략 및 동아리 활동수준 중 적극성이 유의한 영향요인이었고, 셀프리더십은 의사소통능력이 유의한 영향요인이었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적극적인 동아리 활동을 장려하고 전문 간호사의 핵심역량인 의사소통능력과 셀프리더십이 향상되는 교육적 전략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일부 지역의 간호 대학생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으므로 결과를 일반화시키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대상자를 확대 모집하여 연구할 것을 제언한다. 또한 향후 연구에서는 동아리 활동에 참여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활동 내용의 구체적 특성을 파악하고 이 특성에 따른 차이점을 검증하고 지속적인 동아리 활동이 유지될 수 있는 동아리 운영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겠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능력과 셀프리더십 향상을 위한 전공교과목 외에 동아리 활동과 같은 비교과 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확대 운영이 필요함을 확인한 연구임에 의의를 둔다.

References

[1] S. H. Baek "The effects of experience of extracurricular programs on the interpersonal competencies of university students", *Korea Journal of General Education,* Vol. 14, No, 1, pp.259-282, 2020.

[2] S. M. Ham, J. H. Lee, "The influence of college students club activities in school life resilience: Testing mediation model of social support,"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20, No.12, pp.327-348, 2020.
DOI: http://dx.doi.org/10.22251/jlcci.2020.20.12.327

[3] G. J. Na, E. H. Na. "The effect of communication competence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 abilities on the degree of campus life satisfaction: major selection in department nursing and health science collage students",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19, No.9, pp.205-221, 2019.
DOI: http://dx.doi.org/10.22251/jlcci.2019.19.9.205

[4] M. R.Siddiky , "Developing co-curricular activities and extra-curricular activities for all-round development of the undergraduate students: a Study of a selected public university in Bangladesh. Pakistan", *Journal of Applied Social Sciences*, Vol.10, No.1, pp.61-82, 2019.
DOI: https://doi.org/10.46568/pjass.v10i1.101

[5] G. H. Hur, "Construction and validation of a global interpersonal communication competence scale", K*orean Journal of Journalism & Communication Studies*, Vol.47, No.6, pp.380-408, Jun. 2003.

[6] M, Quail, S. B, Brundage, J, Spitalnick, P. J, Allen,J, Beilby, "Student self-reported communication skills, knowledge and confidence across standardised patient, virtual and traditional clinical learning environments", *BMC medical education*, Vol.16, No.1, pp,73, Dec, 2016.
DOI: https://doi.org/10.1186/s12909-016-0577-5

[7] O. S. Lee, M. O. Gu, "The relationship between emotional intelligence and communication skill, clinical competence & clinical practice stress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14, No.6, pp.2749-2759, Jun, 2013.
DOI: https://doi.org/10.5762/KAIS.2013.14.6.2749

[8] M. O. Yu, "The Relationship between communication competency, interpersonal relationship ability and self-management competency of nursing college students in graduation year",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20, No.7, pp.406-413, 2019.
DOI : https://doi.org/10.5762/KAIS.2019.20.7.406

[9] C. P. Neck,, G. L .Stewart, C. C. Manz, "Thought self-leadership as a framework for enhancing the performance of performance appraisers", *The journal of applied behavioral science*, Vol.31, No.3, pp.278-302, Sep, 1995.
DOI: https://doi.org/10.1177/0021886395313004

[10] D. R. Kim, H. N. Lim, J. I. Kim, "Factors influencing self-leadership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11. No.3, pp.369-377, Mar. 2020.
DOI: https://doi.org/10.15207/JKCS.2020.11.3.369

[11] H. J. Hwang, J. H. Lim, "The effect of clinical nurse nursing professionalism and self leadership on organizational commitment,"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18, No.24, pp.1155-1171, Dec. 2018.

DOI: https://doi.org/10.22251/jlcci.2018.18.24.1155

[12] Y. H. Choi, "The influence of participating in club activities at art institutes on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With a focus on the moderating effect of satisfaction with club activities," *The Korean Journal of Arts Education*, Vol. 15, No. 1, pp. 159-173, Mar. 2017.

[13] O. B. Km. "Analysis of difference of problem solving ability and communication ability of college students according to the application of teaching-learning method,"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Vol.8, No.1, pp.799-807, Nov. 2018.
DOI: https://doi.org/10.21742/AJMAHS.2018.11.57

[14] F. Faul, E. Erdfelder, A. G. Lang, A. Buchner, "G* Power 3: A flexible statistical power analysis program for the social, behavioral, and biomedical sciences", *Behavior Research Methods*, Vol.39, No.2, pp.175-191, May, 2007.
DOI: https://doi.org/10.3758/BF03193146

[15] J. Y. Kim, *A study on the relationships between affective characteristics and club activity of adolescence,* Master's thesi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Seoul, Korea, pp.1-62, 2000.

[16] J. D. Houghton, C. P. Neck, "The revised self-leadership questionnaire: Testing a hierarchical factor structure for self-leadership", *Journal of Managerial Psychology*, Vol.17 No.8, pp.672-691, Dec. 2002.
DOI: https://doi.org/10.1108/02683940210450484

[17] Y. K. Shin, M. S. Kim, Y. S. Han, "A study on the validation of the Korean version of the Revised Self-Leadership Questionnaire (RSLQ) for Korean college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Vol.6, No.3, pp.313-340, Dec. 2009.

[18] S. H. Lee, S. E. Chung, " Influencing factors of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self-esteem on communication competence among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14, No.12, pp.340-349, Dec. 2014.

[19] G. J. Ha, S. Y. Moon, S. H. Park, J. H. Park, Y. J. Jeong, S. Y. Heo, W. J. Park, "Influencing factors of club activity, relational self and empathy on communication and leadership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yungpook Nursing Science*, Vol.24 No.1, pp.22-37, Feb. 2020.
DOI: https://doi.org/10.38083/jkns.24.1.202002.22

[20] R. S. Rubin, W. H. Bommer, T. T. Baldwin, "Using extracurricular activity as an indicator of interpersonal skill: Prudent evaluation or recruiting malpractice?. Human Resource Management", *Human Resources Management,* Vol.41, No.4, pp.441-454. Dec. 2002.
DOI: https://doi.org/10.1002/hrm.10053

[21] J. Y. Choi, S. B. Im, "Factors influencing self-leadership of nursing students according to locus of control", *The Journal of Korean Nursing Administration Academic Society*, Vol.24, No.3, pp.182-192. Jun. 2018.
DOI: https://doi.org/10.11111/jkana.2018.24.3.182

[22] S. D. Simpkins, J. S. Eccles, J. N. Becnel, S. Simpkins-Chaput, "The role of breadth in activity participation and friends in adolescents' adjustment", *Developmental Psychology*, Vol.44, pp.1081-1094. Jul. 2008.
DOI: https://doi.org/10.1037/0012-1649.44.4.1081

[23] S. Y. Lee, "The determinants of participating in the types of 'dong-ar-ri'(organized- club/circle activities) of youths",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Vol.20, No.10, pp.407-431, Oct. 2013.

[24] E. Y. Kim, M. H. Song, "A study on the applicability of creativity program using social network service: focusing on the 'creativity community", *The Journal of Creativity Education*, Vol.12, No.3, pp.29-55, Dec. 2012.

[25] A. P. Bochner, C. W. Kelly, "Interpersonal competence: Rationale, philosophy, and implementation of a conceptual framework", *The Speech Teacher*, Vol.23, No.4, pp.279-301, May. 2009.
DOI: https://doi.org/10.1080/03634527409378103

[26] G. D. Kuh, "The other curriculum: Out-of-class experiences associated with student learning and personal development. *The Journal of Higher Education*, Vol.66, No.2, pp.123-155. Nov. 2016.
DOI: https://doi.org/10.1080/00221546.1995.11774770

[27] G. E. Prussia, J. S. Anderson, C. C. Manz, "Self-leadership and performance outcomes: the mediating influence of self-efficacy. Journal of Organizational Behavior",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Industrial, Occupational and Organizational Psychology and Behavior*, Vol.19, No.5, pp.523-538, Dec. 1998.
DOI:https://doi.org/10.1002/(SICI)1099-1379(199809)19:5<523::AID-JOB860>3.0.CO;2-I

[28] Y. S. Lee, S. H. Park, J. K. Kim, "Nursing students' self-leadership, self-efficacy, interpersonal relation, college life satisfaction",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14, No.6, pp.229-240, Jun. 2014.
DOI: https://doi.org/10.5392/JKCA.2014.14.06.229

[29] C. C. Manz, H. P. Sims Jr, "Superleadership: Beyond the myth of heroic leadership", *Organizational Dynamics*, Vol. 19, No.4, pp. 18-35, Mar. 1991.
DOI: https://doi.org/10.1016/0090-2616(91)90051-A

[30] J. D. Kim, *A study on the program development through youth participation*, Ph.D dissertation, Dongguk University, Seoul. Korea, pp.1-130, 2002.

송 민 선(Min-Sun Song) [종신회원]

- 2002년 2월 :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석사)
- 2005년 8월 :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박사)
- 2007년 3월 ~ 2013년 2월 : 동신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 2013년 3월 ~ 현재 : 건양대학교 간호학과 부교수

〈관심분야〉
만성질환간호, 노인간호

이 인 숙(In-Sook Lee) [정회원]

- 2004년 8월 :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석사)
- 2012년 2월 :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박사)
- 2013년 3월 ~ 2014년 2월 : 세명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 2014년 3월 ~ 현재 : 한남대학교 간호학과 부교수

〈관심분야〉
아동청소년 건강, 부모 양육